



1. 표지 속 제목과 그림을 살펴 봅시다. 떠오르는 생각, 느낌, 펼쳐질 이야기를 표현해봅시다.

2. 내가 만약 결말수리사가 된다면, 어떤 결말을 고치고 싶나요? 책, 만화, 영화, 실제 있었던 일, 모두 괜찮습니다.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

3. 지난 학년의 결말은 어땠나요? 결말수리를 하고 싶은가요? 만약 수리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만약 수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왜 그런지 써 봅시다.

4. 새로운 시작 앞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가요? 올해가 끝났을 때, 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정리해봅시다.

“때론 열심히 해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맞기도 하고, 운이 좋게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결말수리사보다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올 한 해 우리 교실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